

# 대학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윤리'의식 제고 방안

-창의적 글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서덕민\* | 전남대

## < 목 차 >

1. 서론
2. 표절 예방 중심 글쓰기윤리 교육의 한계
3. 창의적 글쓰기에서 '글쓰기 윤리' 제고 방안
4. 결론

### 국문초록

대부분의 글쓰기 윤리 교육은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표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술적 글쓰기가 아닌 창의적 글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글쓰기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우선 창의적 글쓰기에서 '글쓰기 윤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첫째, 학습자 스스로가 '글쓰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둘째, 인터넷 등과 같은 현대적 글쓰기 환경은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셋째, 패러디, 오마주, 몽타주 등 상호

\* 전남대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학적 글쓰기와 글쓰기 윤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두 가지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법은 글쓰기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습자가 표절과 창조의 경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들에게 같은 주제로 된 세 개 이상의 텍스트를 제시 2) 모둠을 만든 후 토의 과정을 거쳐 글감 만들기 3) 개별 글쓰기 4) 완성된 글을 서로 비교하기(같은 문장 찾기, 같은 서술방식 찾기, 비슷한 이미지 찾기 등) 5) 창의적 글쓰기와 표절에 관한 토론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텍스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텍스트의 형식만을 모방하기 2)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모두 모방하기 3) 두 개의 텍스트 비교하기 4) 창작의 자율성과 윤리 문제 탐구하기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방법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글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글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글쓰기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제어: 교양교육, 글쓰기 윤리, 창의적 글쓰기, 표절, 상호텍스트성

## 1. 서론

대학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윤리'의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sup>1)</sup> 연구 윤리가 아닌 글쓰기 윤리라는 용어가 대학의 교양교육

1)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는 아래의 논의들이 있다.

이인재,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6, 한국작문학회, 2008.

정현선,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글쓰기 윤리』, 『작문연구』6, 한국작문학회, 2008.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이유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학습 활동의 결과가 대개 글쓰기로 발현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2010년을 전후하여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교양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한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별로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강구되었으며 관련 연구 또한 상당부분 축적 되었다.

현재 대학 학부 과정에서 ‘글쓰기 윤리’의 문제는 학부 과정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의 결과가 리포트를 비롯한 학술적 에세이 등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대학의 글쓰기 윤리는 학문의 정직성, 즉 ‘연구윤리’와 직결된다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도 대부분 글쓰기 부정행위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 이인재, 전동진, 최선경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인재는 글쓰기 윤리 위반의 전형으로 표절을 들고 있다. 이인재는 표절의 개념과 범위, 유형 등을 구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 대상 표절 예방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sup>2)</sup>

전동진은 글쓰기 윤리가 연구윤리의 일부분으로 단순히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sup> 글쓰기에서 윤리성은 “정직성과 도덕성보다는 진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사고와표현』1-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

황성근, 『대학생의 글쓰기 윤리와 표절 문제』, 『사고와표현』1-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

최선경, 『대학생 글쓰기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적 교육방안』, 『수사학』10, 한국수사학회, 2009.

최용성 외, 『연구윤리에서 표절 문제와 표절 예방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22-2,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전동진, 『글쓰기 윤리의 정립과 윤리의식 제고 방안 연구』, 『국제어문』55, 국제어문학회, 2012.

정종진, 『표절에 대한 전통적 논의와 대학생 학습윤리 교육의 반성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4-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2014.

이인영, 『‘바뀌쓰기’가 학문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9-1, 『교양교육연구』, 교양교육연구학회, 2015.

2) 이인재, 앞의 글, 138~149쪽.

실성과 심미성의 차원에서”<sup>4)</sup>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 윤리가 학교라는 테두리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예술과 외설, 표절, 모방, 패러디 등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sup>5)</sup>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전동진의 논의는 글쓰기 윤리의 의미를 실천적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인용의 방식과 출처 표기 등 학술적 글쓰기 관련 수업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선경의 논의 역시 대학생 글쓰기 윤리 교육의 현황 등을 분석하고, 글쓰기 윤리 교육의 제고를 위해 ‘수사학적 논증교육’, ‘올바른 인용법 교육’,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 검증’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글쓰기 영역에서 글쓰기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글쓰기 윤리 교육이 대학의 글쓰기 전반에서 윤리의식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존의 서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 교육은 학술적 글쓰기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 외에도 창의적/일상적 글쓰기 역시 다루고 있다. 대학 글쓰기 영역의 구분은 각 대학 별로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학문적/논리적/논증적’ 글쓰기와 구분되는 영역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영진은 “‘학술문적/논리적/논증적 글쓰기’ 영역이 분석적이고 수렴적이며 적합성에 입각한 비판적 사고에 바탕을 둔 글쓰기라고 한다면 ‘창의적 글쓰기’ 영역은 생성적이고 발산적이며 가능성에 초점을 둔 창조적 사고에 기반한 글쓰기”<sup>7)</sup>로 정의하고 있다.

창의적 글쓰기가 논리적 일관성과 논증의 질차를 중시하는 글쓰기가 아

---

3) 전동진 앞의 글, 571쪽.

4) 같은 글, 594쪽.

5) 같은 곳.

6) 최선경 앞의 글, 310~315쪽.

7) 정영진, 『대학 기초교양에서의 ‘창의적 글쓰기’인식 연구』, 『작문연구』18, 한국작문학회, 2013, 268쪽.

나라는 점에서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학문적/논리적/논증적 글쓰기의 경우 기존의 서지정보 제공 교육을 중심으로 글쓰기 윤리교육 방법론을 공고히 할 수 있다지만 창의적 글쓰기 영역에서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학문 공동체를 넘어 담화 공동체 또는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생의 글쓰기 윤리 준수 문제를 다루고자한다. 이를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글쓰기 윤리 교육의 문제를 간단히 검토하고 창의적 글쓰기 영역에서 글쓰기 윤리의식 확보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 2. 표절 예방 중심 글쓰기 윤리 교육의 한계

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글쓰기 윤리 교육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서지정보 제공 교육을 들 수 있다. 서지정보 제공 교육은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를 표절로 상정하고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인용과 주석을 다는 법 그리고 서지 정보를 적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에서 서지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 윤리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동진은 지난 2011년 전남대 2,3,4학년 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표절 유형과 인용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글쓰기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대다수가 “인용법에서는 짧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요약에 대해서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sup>8)</sup> 있었으며, “표절의 유형은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역시 드문 것”<sup>9)</sup>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서지정보 제공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이다.

지난 2007년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최근

8) 전동진, 앞의 글, 556~557쪽.

9) 같은 곳.

2015년 이를 개정(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함과 동시에 후속조치로서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지침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설의 일부에 표절과 관련된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표절의 범위와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제12조) 3호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설서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도 “논증구조와 아이디어 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이것들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표절 유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차 문헌 표절 및 자기 표절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sup>10)</sup>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표절의 범주는 연구내용, 단어와 문장구조, 독창적인 생각, 번역물에 대한 출처 표시의 유무로 나타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학부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전문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연구와 학문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교수를 위한 학문윤리 지침이 대학 글쓰기 교육에 투영되면서 “타인의 저작물 및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표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글쓰기 윤리 준수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정종진은 “대학생의 글쓰기와 관련되는 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의도적 표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인 표절, 짜깁기 표절, 과제물의 구매 및 양도, 중복제출과 같은 형태들로 나타난다.”<sup>11)</sup>고 언급했다. ‘과제물에

10)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63쪽.

11) 정종진, 앞의 글, 371쪽.

대한 구매와 양도, 중복제출'과 같은 문제 또한 텍스트의 부정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글쓰기 윤리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타당성이 있다. 연구 결과의 게재 및 저자 표시 등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표한 “연구 윤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대학사회에서 이미 공론화 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하지만 학부생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연구물의 게재와 저자 표시 등과 관련된 구체적 교육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글쓰기가 행해지는 여건에 따라 표절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특히 글쓰기 환경의 디지털화는 표절의 방법과 범위를 더욱 다양하게 확장해 놓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글쓰기의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절 예방 교육만으로는 글쓰기 윤리 의식 제고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창의적 글쓰기 영역에서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업 작가들은 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자 외에 글쓰기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창의적 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이해되지만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2015년 한국 문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경숙 표절 사건은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문학 전문가 집단과 그 집단의 토대가 되고 있는 출판계 및 대학의 글쓰기 윤리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문예창작학과를 비롯해 여러 예술 관련 전공학과에서 글쓰기 윤리 혹은 창작 윤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양 글쓰기에서 창의적 글쓰기와 윤리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글쓰기 윤리 문제를 다루기가 요원한 이유는 창작의 자유와 표절의 경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표절과 창조의 구분은 실재와 그것을 재현하는 문제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쟁과 함께 한다. 근대 이후 출판 산업의 발전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표절의 문제가 철학적-미학적 사유의 대상에서 현실적-법리적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되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오늘날 글쓰기에서 원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모방 형식을 일컫는 용어들로 “패러디, 패스티시(혼성모방), 키치, 콜라주·몽타주·오마주(짜깁기), 상호

텍스트성, 영향, 모방, 인용, 차용, 인유, 번역, 의역, 번안, 다이제스트(요약), 발췌, 재해석, 위작, 개작, 모작, 표절”<sup>12)</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저작권 법에서 명시하는 표절과 원텍스트의 정당한 사용의 범주가 모호한 것으로 패러디, 오마주, 콜라주, 몽타주, 패스티시 등의 기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학술적 글쓰기와는 구분되는 창의적 글쓰기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패러디는 기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거리나 반어적 대조를 통해서 생산적인 담론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텍스트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텍스트를 재활용하는”<sup>13)</sup>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패러디는 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모방이며 “생상과정이나 해독과정에서 지적인 가공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적인 담론양식의 하나”<sup>14)</sup>로 평가된다. 패스티시 역시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거의 변형이 없이 차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구, 모티프, 이미지나 에피소드 등으로 구성된다. 표절과는 달리 표면상의 일관되고 고답의 세련된 효과를 지향하는 패스티시는 남을 속이려하지 않는다”<sup>15)</sup>는 점에서 원텍스트의 무단 이용과 구분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선배 제작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원텍스트의 특정한 기법을 활용하는 오마주를 비롯해 원전을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콜라주, 몽타주와 같은 기법 역시 원텍스트에 대한 생산적 변용과 창조의 과정으로 흔히 인정받고 있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정 기법들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미학적이며, 글쓰기 주체의 진실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글쓰기 윤리 문제에 더욱 까다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원전에 대한 출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원전의 활용 범위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방과 창조의 범주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 재현은 어떻게 가능한가?’와 같은 심미적이고 철학적인 문

12) 정끝별, 『현대시 표절 양상에 대한 분석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420쪽.

13) 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221쪽.

14) 같은 곳.

15) 같은 글, 227쪽.



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표절-저작권법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일련의 글쓰기 기법들은 원전의 권위와 원전이 제한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넘나들며 현재를 살아가는 글쓰기 주체의 미적,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방법은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글쓰기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하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글쓰기 주체는 글을 쓰는 환경과 글의 종류, 글의 목적 등에 따라 학습 동기와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표절 예방을 글쓰기 윤리의 중심에 놓고 보면 글쓰기 주체가 의사소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할 보다 다양한 관점을 살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윤리 교육의 방법과 관점은 많은 부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3. 창의적 글쓰기에서 ‘글쓰기 윤리’ 제고 방안

#### 1) 텍스트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글쓰기 윤리

대학에서 글쓰기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절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생산적일지 모른다.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지정보 제공 교육 이후에 대학 글쓰기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학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술적 글쓰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주석을 달고 서지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양식화된 글쓰기와 글쓰기 윤리 교육이 주체의 몰개성화와 창의적 사고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글쓰기 주체가 타인의 저작물, 혹은 원전의 권위에 매몰되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더욱 많은 문제의식을 야기한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글쓰기 주체는 상대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으로서 창의적

글쓰기는 주체가 담화 공동체를 의식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양식을 타진하는 활동을 핵심으로 한다. 정영진은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타자의 시선이나 타자의 존재 자체를 경유할 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창의적 글쓰기는 다원주의 사회가 생산해 내고 있는 폐쇄적, 이기적인 문화에 대한 반성적 주체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sup>16)</sup>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타자를 의식하고 타자와 구분되는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성찰 과정은 기존 글쓰기 윤리 교육에서 행해지는 양식화된 글쓰기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주체는 의사소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덕목과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 항목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춰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표절을 비롯한 연구 결과의 위변조, 과제물의 구매 및 양도와 같은 문제들은 글쓰기 윤리의 일반적인 항목이다. 그러나 창의적 영역에서 글쓰기 주체는 “진실과 거짓, 사실과 왜곡 사이에서 때때로 위험한 줄타기가”<sup>17)</sup>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자신도 모르게 ‘권력에 아첨하는 글’, ‘처세에 진전공공하는 글’”<sup>18)</sup>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주체는 표절 문제에 앞서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를 의식하며 보다 생산적인 사고의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어야하며, 글쓰기 윤리의 관점 역시 보다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늘날의 글쓰기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의 복원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현행 글쓰기 윤리 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석달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필요조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주가 된다면 창의적 사고 과정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된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행 텍스트와 선행 아이디어가 글쓰기 주체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관계를 고려하는 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선행 텍스트는 차이와 동일성을 통해 글

---

16) 정영진 앞의 글, 282쪽.

17) 같은 글, 283쪽.

18) 같은 곳.

쓰기 주체와 생산된 텍스트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창의적 쓰기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이 글쓰기 윤리와 직결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창의적 글쓰기에서의 글쓰기 윤리 교육은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이며 실천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글쓰기는 다른 영역의 글쓰기에 비해 선행텍스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필자에게 부여한다. 선행 텍스트에 대한 비평이나 예술적 차용의 일환이라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될 권리가 창의적 글쓰기의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선행 텍스트를 의식하는 행위이며, 선행하는 아이디어를 의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창의적 영역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결국 ‘텍스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행 텍스트에 대한 활용 방법이 심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글쓰기의 주체에게는 보다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윤리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창의적 글쓰기와 윤리의 문제가 상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저작권법 및 표절과 관계된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은 추후의 문제일 것이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필자는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행 텍스트와 수없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했을 때 글쓰기 윤리는 확보될 수 있다.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은 창조적 주체로서 시인들이 선배 시인들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블룸은 “선배 시로부터의 이탈, 타락, 오독의 과정”<sup>19)</sup>을 통해 창조적 작업이 가능하며, “시는 독립적인 미적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앞선 선배 시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고 선배 시는 단순히 새로운 시의 배경이 아니라 그 시를 태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촉매이다”<sup>20)</sup>고 지적한 바 있다.

블룸의 언급은 문예학적 성찰이기는 하지만 창조적 주체가 텍스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창조성을 발현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글쓰기 주체는 선행 텍스트와의 대립과 갈등 즉 ‘영향에 대한 불안’을

19) 해럴드 블룸, 양석원 역,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2012, 273쪽.

20) 같은 글, 264쪽.

극복함으로써 건전한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창조적 글쓰기 주체가 될 수 있다. 결국 창조적 주체는 텍스트와 텍스트간의 영향관계를 심오하게 성찰하고 이를 자신의 글쓰기에 다양한 방편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의 생각은 선행 텍스트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된다는 “탈구조주의적 상호텍스트성”<sup>21)</sup>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과 유사한 글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체는 윤리적 검열의 장에 놓이게 된다. 블룸이 말하는 ‘영향에 대한 불안’은 ‘윤리’의 다른 이름이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란 선행 텍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을 일컫는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선행 텍스트와의 동일성 즉 ‘표절’을 피하는 것이 창의적 글쓰기의 과정이자 윤리이다.

그러나 창의적 글쓰기에서의 표절의 형태는 학술적 글쓰기와는 사정이 다르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활용되는 패러디, 패스티시, 오마주, 콜라주 등의 미학적 방법론은 글쓰기 주체 스스로가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지하고 선행 텍스트에 대한 비평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예학적 방법론을 선행 텍스트와의 ‘유사도’와 ‘은폐 의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표절’ 논쟁이 벌어지고, 선행 텍스트와의 ‘차이’와 ‘필자의 의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미학적 탐구가 된다.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윤리의 문제가 창조의 문제와 직결되는 지점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방법적 표절에 의해 창조적 가치가 만들어지는”<sup>22)</sup> 시대이다. “인터넷 환경 속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개작하거나 왜곡 또는 변형하는 것이 손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무한복제와 무한 증식이 가능해진 것이다.”<sup>23)</sup> ‘표절 유희(play-giarism)’와 같이 창조성에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개념이나 “‘예상표절(le plagiat par anticipation)’과 같이 근접성이 희박한 두 텍스트 사이에서 확인되는 유사성은 우연이나 고전적인 형태의 표절로는 설명될 수 없음”<sup>24)</sup>을 드러내는 개념은 창의적 글쓰기

---

21) 같은 글, 281쪽.

22) 정끝별, 앞의 글, 429쪽.

23) 같은 곳.

24) 같은 글, 434쪽.

에서 표절을 윤리의 개념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의 문제는 필자 스스로가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활동으로 꾸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인터넷 환경 등 현대의 글쓰기 환경을 고려하고, 상호텍스트성을 근간으로 하는 문예학적 글쓰기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창조성’일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2) 창의적 글쓰기와 글쓰기 윤리 교수 학습법

창의적 글쓰기에서 글쓰기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필자가 자신이 쓴 글이 ‘새롭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의도적으로 남의 글을 훔치는 이유는 ‘새로움’에 대한 탐닉 때문일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강박은 글쓰기 주체를 공동체 속에서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대학 교양 과정에서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쓰기 주체에게 부과되는 ‘나만의 글’이라는 과제는 마치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는 글이 존재할 것이라는 환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준다.

김수이는 대학의 교양 과정의 “글쓰기 교육이 부과하는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써라, ‘나’만의 목소리를 내라, ‘나’를 실현하라는 등의 지침은 학습자들에게 ‘나’의 실현과 열림보다는 ‘나’에 대한 강박과 피로를 안겨줄 소지가 있다.”<sup>25)</sup>고 지적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신이 바로 타자이며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은 채, ‘고립된 허구적인 나’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 타자의 목소리로 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나’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착각하는 현상은 학습자들이 쓰는 글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 유사한 문체, 획일적인 구성을 지닌 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sup>26)</sup>고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25) 김수이, 『공동체, 나눔, 글쓰기2』, 『한국문예창작』13-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258쪽.

26) 같은 곳.

대학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윤리'의식 제고 방안

텍스트 공동체 구성 중심의 교육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와 텍스트의 의미망 속에서 사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지하고, '새로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학습자가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연행시켜 텍스트 공동체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할 글쓰기 윤리의 덕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텍스트 공동체 구성하기를 통한 글쓰기 윤리 교육

차시	학습주제	내용
1 차 시	텍스트 공동체의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주제로 된, 성격이 다른 3개 이상의 텍스트를 제시 (문학작품, 영화, 그림 등도 가능)</li> <li>■ 모듬은 3인 이상으로 구성</li> <li>■ 텍스트 감상 및 모듬 토의 활동을 통한 글감 생성</li> </ul>
	개별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 및 토의 활동을 기초로 한 글쓰기 실습 진행</li> <li>■ 5단락 내외의 에세이 한 편 작성 (모듬에서 벗어나 글쓰기에 임하고 시간은 충분히 줄 것)</li> </ul>
2 차 시	텍스트 공동체와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된 글의 출판과 피드백: 모듬 활동을 통해 각자 쓴 글과 감상 텍스트를 비교하고 비평하기</li> <li>-같은 문장에 밑줄 긋기</li> <li>-서술방식 비교</li> <li>-비슷한 심상 비교</li> <li>-모듬 활동에서 활용한 메모와 비교</li> </ul>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표절의 문제에 대한 해설 및 비평(교수자)</li> <li>■ 고쳐 쓰기: 아이디어 제공자 및 유사한 아이디어에 출처 표시하기, 사사표시하기</li> <li>■ 창작의 자율성, 표절 등 관련 논제를 중심으로 토론</li> </ul>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 작문 과정은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에서 이

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에 적용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은 학교 작문교육에서는 지난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반영된 매우 일반화된 모델이다.<sup>27)</sup> 글쓰기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인과 언어적 요인 그리고 담화 관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자와 담화공동체가 의미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sup>28)</sup>는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은 개별적 장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글쓰기 주체의 사회과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sup>29)</sup> 본 논의에서 제기하고 있는 텍스트 공동체의 협동 글쓰기와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창의적 글쓰기는 장르적 특성상 글쓰기 주체의 사회화보다는 시공을 초월하여 텍스트를 공유하는 주체들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의미화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글쓰기의 윤리의 문제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비슷한 주제 의식을 가진 상이한 텍스트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글쓰기 주체가 텍스트의 관계망 속에서 스스로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3인 이상의 모둠으로 협동 작문 과정을 고려하는 것은 텍스트와 텍스트,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망을 조직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텍스트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글쓰기 환경의 복잡성과 콘텍스트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텍스트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 공동체 구성과 글쓰기 작업 이후에는 학습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학습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쓴 글이 선행 텍스트와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혹은 글감 생성 과정에서 동료와의 영향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수행하는 글쓰기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마무리 작업에서는 교수자가 개입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새로움’이란 기

27) 개정 교육과정에서 작문 과목의 목표: 개인적, 사회적 행위로서의 작문에 대한 이해와 다양하고 풍부한 상황에서 작문 활동을 바탕으로 작문 능력을 신장하고 작문 활동은 통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8) 박영목, 『작문교육론』, 역락, 2008, 148쪽.

29) 주재우,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의 재검토」, 『작문연구』11, 한국작문학회, 2010, 216쪽.

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그 자체”(헤럴드 블룸)라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필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구분되는 콘텍스트들을 찾고, 적절한 인용과 사사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가능할 것이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각주와 인용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글의 서두나 말미에 남길 수 있는 간단한 사사표기 방법 등을 안내하여 창의적 글쓰기에서 용인 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학습자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나. 표절을 통해 표절에서 벗어나기; 모방을 통한 창조적 글쓰기와 윤리

차시	학습주제	내용
1 차 시	양식적 표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적 전형성을 띠고 있는 작품 제시</li> <li>■ 형식적 표절(모방)하기</li> </ul>
	의도적 표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의 의도와 주제 파악 및 내적 구조 이해 (텍스트의 비판적 수용)</li> <li>■ 의도적 표절(모방)하기</li> </ul>
	텍스트 공동체와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적 표절과 의도적 표절의 차이 구분하기</li> <li>■ 패러디를 비롯한 창의적 글쓰기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등 현대적 글쓰기 양식에서 창작의 자율성과 윤리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교수자) 및 토론</li> </ul>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장르의 관습과 사회적 통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모방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엘리엇은 현대 영시사를 통틀어 인용(引喻)을 가장 많이 활용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엇은 “인유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중층적 효과를 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 말한 <역사의식>이 견고한 전통적 시인으로 성장해 나갔다.”<sup>30)</sup> 이러한 맥락에서

30)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7, 331쪽.



그는 “미숙한 시인은 모방하고 성숙한 시인은 흠친다”<sup>31)</sup>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대 미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한 모방과 차용의 여러 기법들은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글쓰기 윤리를 사유할 수 있는 장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된다. 논의를 조금만 소급하자면 ‘창의적 글쓰기의 과정 자체가 곧 글쓰기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은 그리 과장된 것만은 아니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적 표절하기’와 ‘의도적 표절하기’는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모방의 방법을 숙지하고 선행 텍스트와 글쓰기 주체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거나 장르적 정체성이 확고한 권위적인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유명한 시나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짧은 서사물, 고전 설화 텍스트 혹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의미가 고전된 토막글을 제시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양식적 표절 과정은 말 그대로 글쓰기 주체가 선행 텍스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모방하는 과정이며, 의도적 표절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텍스트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모방하는 작업을 통해 텍스트의 수용 절차와 현대적 글쓰기 양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학습 활동은 선행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건전한 영향 관계 설정의 방향을 학습자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교수자는 선행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절차와 방법이 지켜졌을 때 창조적 글쓰기와 윤리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한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수 학습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텍스트 공동체를 구성하고 윤리적이드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선행 텍스트와 아이디어를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글쓰기 윤리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선행 텍스트를 비판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적 글쓰기 기법을 숙지하는 등 창의적 글쓰기 일반의 기술적

---

31) 같은 책, 339쪽.

측면과 더불어 타자의 사고를 존중할 줄 아는 사고를 배양할 수 있다.

#### 4. 결론

글쓰기 윤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다시 사고해야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글쓰기 윤리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주석과 서지사항 표기에 관해 아는 과정이 아니다. 글쓰기 윤리 교육은 대학이나 국가가 정한 윤리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글쓰기 윤리란 학습자가 윤리의 문제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글쓰기를 넘어 의사소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사고를 존중하고, 타인의 사고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전인적 교육으로서 글쓰기 윤리 교육 과정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글쓰기 영역별로 특성화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윤리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 연구는 글쓰기 윤리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에 대한 윤리적가이드라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학문적/논리적/논증적 글쓰기와 구분되는 글쓰기로서 창의적 글쓰기에서도 역시 글쓰기 윤리의 문제는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예술 분과에서 발생하는 표절 시비가 이를 방증한다.

본 논의에서는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의 문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찰했다. 창의적 글쓰기에서 윤리의 문제는 필자 스스로가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 환경 등 현대의 글쓰기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텍스트성을 근간으로 하는 문예학적 글쓰기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창조성'일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점을 밝히고 있다.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 공동체 구성하기를 통한 글쓰기 윤리 교육”과 “표절을 통해 표절에서 벗어나기”와 같은 글쓰기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은 글쓰기 주체가 선행 텍스트와의 영향관계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과정의 글쓰기 교육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창의적 영역에서의 윤리의식 제고에 대한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글쓰기 윤리 교육이 요원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장르별로 글쓰기 윤리 교육의 성격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논의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현장 적용 및 실용성과 관련된 사안은 추후 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 김수이, 『공동체, 나눔, 글쓰기2』, 『한국문예창작』13-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 박영목, 『작문교육론』, 역락, 2008.
-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7.
- 이인영, 『'바뀌쓰기'가 학문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9-1, 『교양교육연구』, 교양교육연구학회, 2015.
- 이인재,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6, 한국작문학회, 2008.
- 정끝별, 『현대시 표절 양상에 대한 분석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전동진, 『글쓰기 윤리의 정립과 윤리의식 제고 방안 연구』, 『국제어문』55, 국제어문학회, 2012.
- 정종진, 『표절에 대한 전통적 논의와 대학생 학습윤리 교육의 반성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4-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2014.
- 정영진, 『대학 기초교양에서의 '창의적 글쓰기'인식 연구』, 『작문연구』18, 한국작문학회, 2013.
- 정현선,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글쓰기 윤리』, 『작문연구』6, 한국작문학회, 2008.
-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사고와표현』1-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
- 주재우, 『사회구성주의 작문이론의 재검토』, 『작문연구』11, 한국작문학회, 2010.
- 최선경, 『대학생 글쓰기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적 교육방안』, 『수사학』10, 한국수사학회, 2009.
- 최용성 외, 『연구윤리에서 표절 문제와 표절 예방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22-2,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황성근, 『대학생의 글쓰기 윤리와 표절 문제』, 『사고와표현』1-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해럴드 블룸, 양석원 역, 『영향에 대한 불안』, 문학과지성사, 2012.

*Abstract*

## **'Writing Ethics' Improvement Plans i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Focusing on Creative Writing

Seo, Deok-min(Chonnam Univ.)

This study explores how to improve the effect of writing ethics education. Most of writing ethics education aims to prevent plagiarism in academic writing.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exploring how to prevent cheating, which may occur in creative writing, not in academic writing.

For improving the effect of 'writing ethics' education in creative writing,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s.

First, it is required to help writers recognize well that they are members of 'writing community'.

Second, writing ethics education, which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modern writing environments like the internet, is needed.

Third, it is required to help in broadening an understanding of literary writing that is based on intertextualities such as parody, homage and montage. (It is required to help learners escape from obsession that they must 'create something new'.)

This study suggests two education methods for ethics improvement in creative writing. The first method is to make learners experience the boundary between plagiarism and creation by organizing a writing community. The order is as follows; 1) Show more than three texts with the same topic to learners. 2) After grouping, make materials for writing through a discussion. 3) Individual writing. 4) Compare complete writings to each other. (Find the same sentences, the same description

methods, similar images, etc.) 5) Discuss creative writing and plagiarism.

The second method is a program to copy one text in two ways. The order is as follows; 1) Copy the form of text only. 2) Copy both content and form of text. 3) Compare two texts. 4) Explore autonomy of writing and ethical problems.

The education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focused on helping learners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ir writings and existing writings by themselves. This education is meaningful by helping learners set an ethical guideline of writing on their own.

■ keyword: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Creative Writing, plagiarism, Writing Ethics, intertextualities

접수일자: 2016. 6. 28 심사일자: 2016. 7. 19 게재결정: 2016. 8. 18

